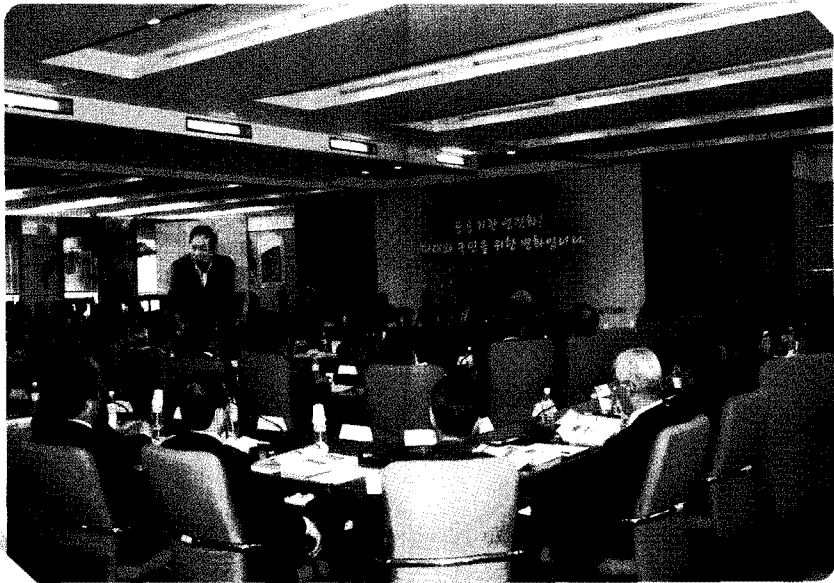


한국어촌어향협회, 2008년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우수’

92개 대상기관중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우수 평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점검 워크숍

한국어촌어향협회(회장 심호진)가 2008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2008년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아주우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없으며, 한국어촌어향협회,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24개 기관장이 ‘우수’ 평가를, 64개 기관장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관장 해임건의를 검토하는 50점 미만의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4곳에 이른다.

특히 한국어촌어향협회는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수산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한국어촌어향협회는 그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시책에 따라 조직 인력 슬림화, 사업구조 고도화, 경영시스템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능동적으로 이행해 왔다.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번 결과로 한국어촌어향협회의 경영이 시스템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어촌어향협회는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영효율화와 어업기반권역의 종합개발관리로 수산업과 어업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나아가 수산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바다여행” 선정 추천 해수욕장 BEST 10



경북 울진의 구산 해수욕장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 BEST 10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해수욕장 BEST 10’은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지 않아 조용하면서도 해수욕과 더불어, 갯벌 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10곳을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속초의 외옹치 해수욕장, 삼척의 장호 해수욕장, 충남 태안의 사목 해수욕장, 전북 부안의 모항 해수욕장, 전남 함평의 돌머리 해수욕장, 고흥의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경북 울진의 구산 해수욕장, 영덕의 장사 해수욕장, 경남 통영의 비진도산호빛 해수욕장, 제주의 이호테우해변 등이다.

이들 해수욕장은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곳으로 기본적인 해수욕 이외에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갯벌체험, 바다낚시, 조개잡이 등의 어촌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촌 민박, 야영장, 몽골텐트 등의 숙박 임대 등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